

순찰 근무중 경관 2명 술집 미성년자와 동침

모두 파면조처

【원=김현태 기자】 C3차량 방
순찰경찰관 2명이 근무시간에
성년자를 고용한 술집에 찾아
이들을 여관으로 데리고 간
일이 밝혀져 23일 파면됐다.
창원경찰서 상북파출소 소속
동덕(32) 순경과 홍승표(35)
경 등 2명은 지난 17일 자정께

창원시 지귀동 미성카페에 들어
가 인신매매단에 의해 창원까지
팔려와 술시중을 들던 서울 여
중 3년 김아무개(15)양과 박아무
개(15)양 등 2명을 불러내 C3순
찰차에 태운 뒤 인근 명서동 여
관으로 데려가 화대 5만원씩을
주고 2시간 동안을 같이 지냈다는 것이다.

이런 사실은 딸을 찾아나선 김
양의 아버지 김아무개(50)씨가
경찰에 항의, 자체조사결과 밝혀
졌다.

김양 등은 지난 여름방학 때
가출,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준다는
인신매매단의 꾀에 빠져 창원과
부산의 술집에서 술시중과 윤
락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.

한편 창원경찰서는 이날 징계
위원회를 열어 박·홍 순경을 직
무유기 혐의로 파면하고 윤락행
위방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

편지회책임을 물어 상북파출소장
박현 경위를 중징계하기로 했다.